

동물교감치유 경험 기관의 서비스 인식에 관한 연구

유지현*, 신정섭, 김수미, 진현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A Study on Service Awareness Perceived by Group Using Animal-Assisted Intervention

Ji Hyun Yoo*, Jeong Seop Shin, Su Mi Kim, Hyun Ju Jin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DA

요약 본 연구는 동물교감치유를 경험한 기관의 서비스 인식을 알아보려고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개별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동물교감치유 효과에 대한 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SPSS Win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범주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 첫째, 동물교감치유 효과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교감치유를 처음 도입할 때 기대하는 목적과 경험 후 체감하는 효과 모두 심리적인 효과가 가장 높았다. 둘째, 동물교감치유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자 몰입도와 차별화된 서비스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동물교감치유 비용은 동물과 함께하는 활동, 참여자의 만족도 등을 고려하면 대체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타 프로그램에 비해 다소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동물교감치유 가치와 대중적인 확대 가능성을 대체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동물교감치유 효과에 참여자의 몰입도와 전문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물교감치유가 심리치료 기법으로써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동물교감치유를 양질의 서비스로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ervice awareness perceived by 25 groups using animal-assisted intervention(AAI).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for variables on the effectiveness of AAI by using SPSS Win 25.0 statistical program. The study findings showed that AAI service is very effective for psychological meaning in both expecting purpose before and substantive effect after using AAI. They were satisfied with AAI generally, particularly in terms of participant engagement and differentiated services. Also, they perceived that the cost of AAI service is generally appropriate in consideration of activities with animals and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but a bit expensive compared to other programs. Also, it was found that the value and the possibility of public expansion of AAI are very high and that the immersion and professionalism of the participants affect the effectiveness of AAI.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and verify effectiveness as a psychotherapy technique and are expected to be useful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nd developing a quality service of AAI.

Keywords : Animal-Assisted Intervention, Animal-Assisted Therapy, Therapy Animal, Companion Animal, Awareness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세부과제번호: PJ01284702)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Ji Hyun Yoo(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DA)
email: puppy337@korea.kr
Received September 20, 2019
Accepted December 6, 2019

Revised October 30, 2019
Published December 31,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간과 동물간의 상호 작용과 감정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정신적인 유대관계를 맺는다. 이를 인간과 동물의 유대(HAB: Human-Animal Bond)라고 하는데, 이는 불안이나 우울 감소, 성취감이나 자아 존중감 향상은 물론 근력, 평형감각 개선 등 사람의 정신과 신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HAB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경우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전체 가구의 68%에 달하고[2], 인간의 건강 증진, 교육, 치료를 목적으로 개, 기니피그, 말 등 다양한 동물들과 함께하는 동물매개중재(AAI: Animal-Assisted Intervention, 이하 AAI)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AAI 활동은 건강한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물론 발달장애아동[3-5], 병원 환자[6-8] 등을 치료하는 요법으로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AAI 유형은 목적과 기법에 따라 동물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상호반응을 얻을 수 있는 동물매개활동(Animal-Assisted Activity), 교육 목표를 지향하는 동물매개교육(Animal-Assisted Education), 치료 목표 지향적인 동물매개치료(Animal-Assisted Therapy)로 구분하고 있다[1].

국내의 경우 2017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전체 가구의 28.1%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이 인간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주는 가족이나 친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018년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인의 생활에 있어 가장 기쁨을 주는 것을 물어봤을 때 반려동물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75.6%, 그 다음을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3.3%로 조사되었다[10].

AAI를 국내에서는 동물매개중재, 동물매개치유 등으로 혼용해서 부르고 있는데, 2018년 농촌진흥청 동물매개치유 대체용어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 반려동물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동물교감치유 용어를 선호하는 비중이 동물치유, 동물보조치유, 동물활용치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87%)[11]. 이는 최근 동물과의 정서적인 교감과 사회적인 소통을 증시하는 사회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동물교감치유란 동물과의 상호 교감을 통해 사람의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회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의

미한다[11].

기존 반려동물 산업으로 사료, 용품, 수의 및 진료 분야 등이 주목받았는데, 최근 보험, 미용, 장례 등이 신성장 서비스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12]. 반려동물과 관련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면서 동물교감치유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심리적, 신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노인, 환자 등에게 새로운 치유 기법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동물교감치유가 비영리단체의 자원봉사 활동(미국 Pet Partners, 영국 SCAS 등)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 산업 측면에서 바라본 연구는 거의 없다. 국내에서는 기존 치유농업, 원예치료의 특성, 인식 조사[13-16] 등에 대한 현황 연구가 이어져 왔지만, 동물교감치유에 대한 기초자료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물교감치유 경험기관의 서비스 인식을 분석하여 동물교감치유를 국내에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고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동물교감치유 서비스를 경험한 노인·장애인 복지·요양기관 14곳, 특수학교 7곳, 병원 4곳 등 총 25개 기관에서 동물교감치유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기준은 2017년 3월 기준으로 동물교감치유 프로그램을 5회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한 기관으로 한정하였다.

2.2 설문조사

2.2.1 예비연구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과 방법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장애인 복지 기관에서 근무하는 동물교감치유 담당자 5명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에 인덱스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항목은 동물교감치유 이용 현황, 효과, 가치 인식 순으로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2.2 설문지 구성 및 조사 방법

예비연구결과를 토대로 설문지 항목은 총 2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최종 설문지는 반려동물 전문가, 심리치료 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아 보완하였다. 구성내용은 연구

통계학적 특성 3문항, 동물교감치유 서비스 이용 현황 9 문항, 동물교감치유 효과 11문항, 동물교감치유 가치 인식 6문항으로 설정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개별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2개월간 실시되었다.

2.3 자료 분석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Win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항목에 대한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다. 또한 동물교감치유의 효과에 어떠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지 범주형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일반 선형 회귀 분석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오차 제곱합이 가장 작게 나타나는 가중치를 찾아서 선형모형식을 만들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범주형 자료들은 범주형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연속형이 아니라 비연속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미변수화 또는 등간척도인 연속변수로 취급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차항에 대한 정규성 분포와 등분산 가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주형인 변수들은 분석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량화 작업을 진행한 다음 분석에 이용하여야 한다. 범주형 변수의 수량화는 우선 범주형인 종속변수에 대해 시행한 다음 설명변수들에 대해 수량화를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범주형 변수에 대한 수량화를 마치면 오차 제곱합이 가장 작은 회귀모형을 만들 수 있으므로[17], 이러한 과정을 거친 범주형 변수를 통해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조사 참여자의 특성은 Table1과 같다. 참여자 25명 중 여성이 72.0%로 남성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는 30대 44%, 20대 36%, 40대가 20%로 나타났다. 담당 직무는 사회복지 분야가 40%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문화여가 프로그램 매니저, 행사 기획자 등) 20%, 교육복지 16%, 특수교육, 물리치료, 상담사가 각 8%로 조사되었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5)

Variable		N	%
Gender	Male	7	28
	Female	18	72
Age	20s	9	36
	30s	11	44
	40s	5	20
Job	Social Welfare	10	40
	Educational Welfare	4	16
	Special Education, Physical Therapy, Psychologist, etc.	2	8
	Etc(Cultural leisure program manager, event manager, etc)	5	20

3.2 동물교감치유 서비스 이용 현황

동물교감치유를 도입한 시기는 2014~2016년이 56%, 2017년 이후가 24%, 2014년 이전이 20% 순으로 나타났다. 도입시기가 가장 빠른 것은 2009년 10월로 조사되었다. 동물교감치유를 인지한 경로는 지인 추천과 인터넷(검색 포함)이 각 32%, 복지관, 세미나 등 타 기관 방문 24%, 서비스 업체 방문 홍보 8%, 언론 기사 4%로 나타났다. 동물교감치유를 도입한 계기는 치유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가 40%, 참여자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선호할 것 같아서가 28%,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고 싶어서가 20%,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가 8%, 동물교감치유 프로그램이 향후 장래성이 있을 것 같아서가 4%로 조사되었다.

동물교감치유의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동물교감치유를 도입한 목적은 심리 치료가 52%, 정서 순화가 40%로 신체치료, 교육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물교감치유 참여자 유형은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 등)가 88%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정서장애, 신체장애, 정신질환, 저소득층, 일반인, 한부모가정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는 초등학교생이 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 성인, 미취학 아동, 노인 순으로 조사되었다. 치유도우미 동물로 개가 96%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주로 대형견과 소형견이 짝을 이뤄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연간 진행 횟수는 20회 미만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프로그램당 4회 미만이 36%이고, 진행시간은 60분 이상~100분 미만이 25%로 다른 응답에 비해 높게 나왔다.

Table 2. The service usage status of AAI (N=25)

Variable		N	%
Purpose of introducing	Psychological therapy	13	52
	Emotional stability	10	40
	Physical therapy	1	4
	Education	1	4
Type of participant	developmental disability	15	60
	emotional disorder	7	28
	a physical handicap	6	24
	'mental illness	6	24
	Low income	5	20
	Ordinary person	4	16
	One-parent family	2	8
Age of participant	Preschool child	4	16
	Elementary school student	14	5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9	36
	Adult	5	20
	The elderly	3	12
Therapy animal	Dog	24	96
	Guinea pig	4	16
	Hamster	3	12
	Cat	2	8
	Ferret	2	8
	Horse	1	4
Number of program	Less than 20	11	44
	20 to less than 40	5	20
	40 to less than 100	2	16
	More than 100	4	8
	Unknowing exactly	3	12
Number per program	Less than 4	7	36
	5 to 10	6	24
	11 to 20	5	20
	More than 21	5	20
Time(Minute) of program	More than 30 to less than 60	11	44
	More than 60 to less than 100	13	52
	More than 100	1	4

3.3 동물교감치유 효과

동물교감치유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동물교감치유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다소 만족 부분에서 참여자 몰입도가 96%, 차별화된 서비스가 92%, 프로그램 전문성이 92%, 프로그램 질이 88%로 나타났다. 매우 만족과 다소 만족이라고 응답한 구체적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동물과 교감하면서 타인에 대한 이

해도가 높아지고 사회성이 향상되면서 대인관계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반려동물과 교감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자기감정을 표현할 줄 알고 불안함이 완화되면서 공격적인 성향이 감소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동물의 귀여운 외모와 행동으로 참여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점을 기존 치유 기법과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꼽았다. 한편, 보통이라고 응답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참여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치유 기법에 비해 비용이 다소 비싸고 프로그램 횟수가 짧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동물교감치유 서비스를 시행하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업체의 역량을 비교하는 것이나 검증이 어려우며,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동물교감치유를 도입하기가 힘들고, 프로그램 인원에 비해 참여하는 동물의 수가 적다고 응답하였다.

Table 3. The satisfaction level of AAI (N=25)

Variable	Very satisfied	Somewhat satisfied	Neutral
Satisfaction level of institution	N(%)		
- Immersion of participant	11(44)	13(52)	1(4)
- Professionalism	10(40)	1(52)	2(8)
- Differentiated service	10(40)	13(52)	2(8)
- Quality of program	10(40)	12(48)	3(12)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동물교감치유 체감 효과 중 전반적인 효과에서 매우 효과가 있다고 다소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2%로 나왔다. 심리적인 효과는 96%, 인지적인 효과는 60%, 신체적인 효과는 48%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심리적인 효과로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현실감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공격적인 성향이 다소 감소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꼽았다. 인지적인 효과로 동물에게 거친 말이 아닌 순화된 언어로 말을 걸며, 동물의 이름을 기억하는 등 기억력이 향상되는 점을 꼽았다. 신체적인 효과로 움직임이 적은 대상자의 경우 동물과 산책,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체를 움직이는 기회가 생기는 점을 들었다.

Table 4. The effectiveness of AAI (N=25)

Variable	Very effective	Somewhat effective	Neutral	Somewhat ineffective
	N(%)			
Overall	2(8)	21(84)	2(8)	-
Psychological	10(40)	4(56)	1(4)	-
Cognitive	2(8)	13(52)	9(36)	1(4)
Physical	3(12)	9(36)	12(48)	1(4)

3.4 동물교감치유 가치 인식

동물교감치유에 대한 비용을 묻는 질문에 적절하다고 52%, 다소 비싼 편이다가 36%, 다소 싼 편이다가 12%로 나왔다. 비용은 대부분 서비스 경험 기관의 예산비용을 고려하여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타 프로그램에 비해 다소 비싼 편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와 인력, 대상자의 만족도를 고려하면 합리적인 금액에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소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참여 동물과 같이 오는 것을 감안하면 별로 비싸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타 프로그램에 비해 시간은 짧고 다소 비싼 편으로 바꾸거나 보험 등과 같은 지원 적용이 어렵다고 하였다. 다소 싼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형견과 소형견이 함께하는 활동, 동물과 함께 이동하는 과정 등을 감안하면 가격이 다소 싼 편이라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Table 5와 같이 동물교감치유에 대한 가치를 묻는 질문에 매우 높다와 다소 높다와 응답한 비율이 80%로 나타났다. 반면 잘 모르겠다가 12%, 다소 높지 않다가 8%로 나왔다.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한 이유로 심리·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증가하면서 대상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반려동물은 대상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놀이처럼 접근하는 방식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지 않아 보호자들이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중립과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서만 경험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고, 타 프로그램에 비해 비용이 다소 비싸기 때문에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Table 5. The value of AAI (N=25)

Variable	Very willing	Somewhat willing	Neutral	Somewhat unwilling
Value	8(32)	12(48)	3(12)	2(8)

Table 6에서 보듯이 동물교감치유를 향후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매우 의향이 있다와 다소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8%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대상자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효과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반면 보통이다와 다소 의향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12%로 나왔는데, 타 프로그램에 비해 다소 비싼 비용으로 인해 대상자 규모가 적어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교감치유를 타 기관에 추천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96%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추천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Table 6. The willingness to use and recommend AAI (N=25)

Variable	Very willing	Somewhat willing	Neutral	Somewhat unwilling
	N(%)			
Willingness to use continuously	16(64)	6(24)	1(4)	2(8)
Willingness to recommend	13(52)	11(44)	1(4)	-

동물교감치유에의 향후 대중적인 확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확실히 그럴 것이다 20%, 아마도 그럴 것이다 72%, 잘 모르겠다 8%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동물이 인간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3.5 동물교감치유 효과에 대한 변수 분석

동물교감치유의 효과에 어떠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범주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다음 Table 7, 8과 같다. 설명변수들간의 상관관계로 인해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관분석을 통

해 불필요한 변수는 제외하고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에 투입한 변수는 참여자 몰입도, 전문성, 프로그램 질, 가치, 지속적인 이용의향, 대중적인 확대 가능성이며, 모형의 수정된 설명력(Adjusted R Square)는 72.7%로 나타났다. 모형의 F값은 7.390,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Table 7. Model Summary (N=25)

Multiple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Apparent prediction error
0.917	0.841	0.727	0.159

Table 8. Anova Result (N=25)

	Sum of squares	df	MeansSquare	F	Sig.
Regression	21.018	10	2.102	7.390	0.000
Residual	3.982	14	0.284		
Total	25.000	24			

Table 9에서 보듯이 동물교감치유의 효과에 참여자 몰입도만 5% 유의수준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전문성도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동물교감치유 효과에 프로그램의 질, 가치, 지속적인 이용의향, 대중적인 확대 가능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Categorical Regression Result(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df	F	Sig.
	Beta	Bootstrap estimate of Std. error			
Immersion of participant	0.751	0.334	3	4.251	0.025
Professionality	1.009	0.538	2	3.003	0.082
Quality of program	-1.049	0.591	2	2.636	0.107
Value	0.374	0.357	1	1.132	0.305
Willingness to use continuously	-0.256	0.308	1	0.806	0.385
Popular expandability	-0.146	0.322	1	0.251	0.624

4. 결론

본 연구는 동물교감치유를 국내에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동물교감치유 경험기관의 서비스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동물교감치유 효과를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교감치유를 처음 도입할 때 기대하는 목적과 경험 후 체감하는 효과 모두 심리적인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동물교감치유를 도입한 목적으로 심리치료와 정서순화가 92%로 신체치료, 교육보다 높게 나왔고, 동물교감치유 체감효과 역시 심리적인 효과가 96%로 인지적, 신체적인 효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물교감치유가 심리치료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으며, 동물교감치유 참여자 조사 결과, 장애인의 비중이 높은 만큼 발달장애, 정서장애 등을 대상으로 심리적인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동물교감치유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자 몰입도와 차별화된 서비스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동물교감치유가 살아있는 동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참여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동물과 놀이하면서 즐기는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질적인 부분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 특성에 맞는 동물교감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물교감치유 강사의 역량을 강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물교감치유 비용은 동물과 함께하는 활동, 참여자의 만족도 등을 고려하면 대체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타 프로그램에 비해 다소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물교감치유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향이 타 기관에 추천할 의향보다 낮았는데, 비용적인 부분이 동물교감치유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타 치유 프로그램의 복지정책, 바우처 활용 등 지원현황을 조사하여 동물교감치유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동물교감치유 가치와 대중적인 확대 가능성을 대체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물교감치유에 대한 호감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동물교감치유 효과에 참여자의 몰입도와 전문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참여자의 몰입도와 전문성이 높을수록 동물교감치유 효과가 높아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동물이 포함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2019.3.18.)에 따라, 동물교감치유에 대한 기초자료가 더욱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장 진입 초기인 동물교감치유를 양질의 서비스로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물교감치유를 경험한 일부 기관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균형화된 표본추출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물교감치유 참여자와 보호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O. J. Kim, Fundamentals of animal assisted therapy, p.356, Dongil Publishers, 2015, pp.202-221.
- [2] APPA, APPA National Pet Owner Survey `2017- 2018`, Survey Report, APPA, U.S., pp.638.
- [3] M. M. Bass, C. A. Duchowny, M. M. Llabre, "The effect of therapeutic horseback riding on social functioning in children with autism", *J Autism Dev Disord*, Vol.39, No.9, pp.1261-1267, Apr. 2009.
DOI: <https://doi.org/10.1007/s10803-009-0734-3>
- [4] M. E. O'Haire, S. J. McKenzie, S. McCune, V. Slaughter, "Effects of Classroom Animal-Assisted Activities on Social Functioning i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J Altern Complement Med.*, Vol.20, No.3, pp.162-168, Mar. 2014.
DOI: <https://doi.org/10.1089/acm.2013.0165>
- [5] F. Martin, J. Farnum, "Animal-Assisted Therapy for Children with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West J Nurs Res.*, Vol.24, No.6, pp.657-670, Oct. 2002.
DOI: <https://doi.org/10.1177/019394502320555403>
- [6] S. Abate, M. Zucconi, B. Boxer, "Impact of Canine-Assisted Ambulation on Hospitalized Chronic Heart Failure Patients' Ambulation Outcomes and Satisfaction: A Pilot Study", *J Cardiovasc Nurs.*, Vol.26, No.3, pp.224-230, May-Jun. 2011.
DOI: <https://doi.org/10.1097/JCN.0b013e3182010bd6>
- [7] N. Bardill, S. J. Hutchinson, "Animal-assisted therapy with hospitalized adolescents", *Child Adolesc Psychiatr Nur*, Vol.10, No.1, pp.17-24, Jun. 1997.
- [8] S. B. Barker, K. S. Dawson, "The effects of animal-assisted therapy on anxiety ratings of hospitalized psychiatric patients", *Psychiatr Serv.*, Vol.49, No.6, pp.797-801, Jun. 1998.
- [9]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People are sympathetic about necessity of animal welfare[Internet], Reported News, c2017 [cited 2017 December 28], Available From: <http://www.mafra.go.kr>(accessed Sep. 20, 2019)
- [10] Korea Pet Food Association, A survey of possession status and awareness, Survey Report, Korea Pet Food Association, Korea, pp.25.
- [11] J. H. Yoo, H. J. Jin, J. A. Lee, The cognition and case of animal assisted intervention, p.89,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2018, pp10-11.
- [12] KREI,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companion animal industry, Research Report,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orea, pp.232.
- [13] G. M. Gim, J. H. Moon, S. J. Jeong, S. M. Lee, "Analysis on the Pres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Agro-healing in Korea",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Vol.20, No.4, pp.909-936, Dec. 2013.
DOI: <http://dx.doi.org/10.12653/jecd.2013.20.4.0909>
- [14] S. A. Park, A. Y. Lee, G. J. Lee, W. L. Lee, S. J. Bae, "A Study of Awareness and Needs for Care Farming in South Korea", *J. People Plants Environ.*, Vol.20, No.1, pp.19-24, Feb. 2017.
DOI: <https://doi.org/10.11628/kspp.2017.20.1.019>
- [15] J. K. Seo, S. M. Lee, H. J. Kim, S. S. Jang,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Urban Customer in Horticultural Activity Program", *Journal of People Plants and Environment*, Vol.13, No.1, pp.7-15, Feb. 2010.
- [16] S. D. Lee, E. J. Jang, C. H. Pak, "The Recognition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Horticultural Therapy Program at Seoul Type Day-Care Centers", *Journal of People Plants and Environment*, Vol.15, No.2, pp.79-84, Apr. 2012.
- [17] Datasolution Consulting Team, SPSS Statistics Regression, p242, Hannarae Publishers, 2017, pp.199-242.

유 지 현(Ji Hyun Yoo)

[정회원]



- 2001년 2월 : 전북대학교 가정학과 (가정학석사)
- 2012년 4월 ~ 현재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지도사
- 2019년 8월 : 원광대학교 농학과 (박사 수료)

<관심분야>

치유농업, 반려동물, 동물복지

신 정 섭(Jeong Seop Shin)

[정회원]



- 2012년 8월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경제학석사)
- 2012년 3월 ~ 현재 :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원
- 2018년 2월 :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박사 수료)

<관심분야>

정보, 식품, 안전

김 수 미(Su Mi Kim)

[정회원]



- 2017년 9월 : 원광대학교 동물매개심리치료학과 (동물매개심리치료학석사)
- 2017년 9월 ~ 현재 : 원광대학교 농학과 (박사과정 중)
- 2019년 1월 ~ 현재 : 국립축산과학원 전문연구원 (석사후)

<관심분야>

동물교감치유, 심리, 동물복지

진 현 주(Hyun Ju Jin)

[정회원]



- 2002년 8월 : 강원대학교 축산학과 (축산학박사)
- 1988년 ~ 1991년 12월 : 포항시·경주시 농업기술센터
- 1992년 1월 ~ 현재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업연구사

<관심분야>

스마트축산, 동물유전자원